

한국어 위키백과 10주년

우리 모두가 만든 지성의 역사
한국어 위키백과 10년



주관: 위키미디어 대한민국 (준)

후원: 구글코리아, 아사달

차 례

- 04** 10주년 행사 프로그램 안내
- 05** 숫자로 보는 한국어 위키백과 10주년
- 06** 한국에서의 백과사전 ... 케골
- 09** 위키백과에 어서 오세요! ... Mineralsab
- 13** 위백은 지식의 유토피아? ... trainholic
- 15** 위키백과의 즐거움 ... jjw

※ 게재내용은 투고자의 개인 의견이며, 미디어위키 대한민국(준)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10주년 행사 프로그램 안내

1부 기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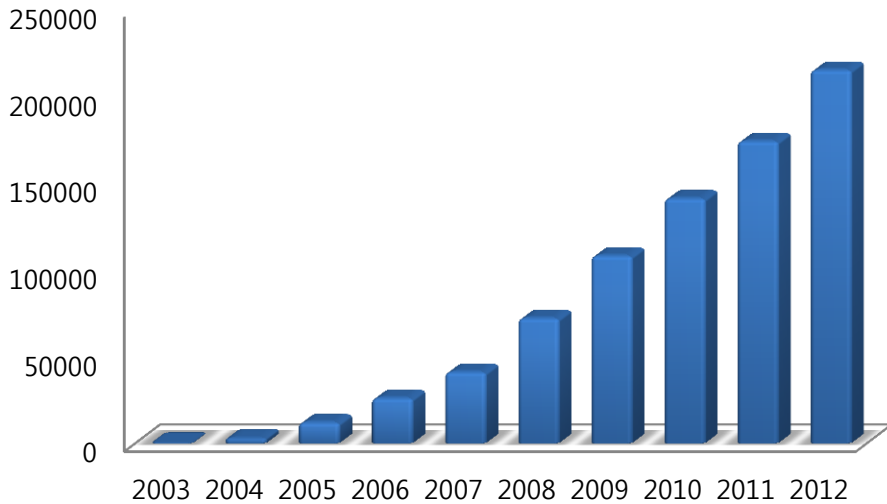
시간	내용	참가자	비고
13:00 ~ 13:30 (30분)	참가자 등록	-	-
13:30 ~ 13:35 (5분)	개회사	이만재 (서울대학교 특임연구위원)	-
13:35 ~ 13:55 (20분)	축사	윤중수 (CCK 프로젝트 리더)	-
13:55 ~ 14:10 (15분)	기념 케이크 커팅	-	-
14:10 ~ 14:40 (30분)	한국어 위키백과 소개	jjw	-
14:40 ~ 14:50 (10분)	위키미디어 대한민국 창립준비위원회 경과보고	Mineralsab	-
14:50 ~ 15:20 (30분)	위키백과 발전을 위한 제언	케골	-
15:20 ~ 15:30 (10분)	휴식	-	-

2부 주제 발표 / 발언

시간	내용	참가자	비고
15:30 ~ 15:40 (10분)	안내	-	-
15:40 ~ 15:55 (15분)	자유 주제 발표 1	-	-
15:55 ~ 16:10 (15분)	자유 주제 발표 2	-	-
16:10 ~ 17:25 (75분)	주제별 사용자 발언	-	-
17:25 ~ 17:30 (5분)	폐회사	-	-
17:30 ~ 18:00 (30분)	기념촬영 및 정리	-	-

※ 프로그램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한국어 위키백과 10주년



한국어 위키백과의 나이	10
활동적인 사용자 수	1,800+
시간당 페이지뷰 수	77,000+
일반문서 수	210,000+
편집 횟수	10,000,000+

참고자료

<http://ko.wikipedia.org/wiki/위키백과:통계>

<http://ko.wikipedia.org/wiki/특수기능:통계>

6

백과사전은 사전과 함께 가장 권위 있는 참고문헌으로 여겨진다. 서양에서 계몽주의 물결이 거세게 밀려왔을 때, 그들은 지식과 지식인의 역할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조선시대 성리학이 정치가의 교양으로 자리잡은 후에 통치와 지적인 소양은 밀접한 관계를 이루었고, 통치자들의 자리는 마땅히 유교적 지식인 계급이 차지 했다. 하지만 서양의 전제군주들은 꼭 지식인일 필요는 없었으며 무력을 통제할 수 있는 장군들과 함께 지식인들의 도움으로 통치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계몽주의는 지식의 보편성을 설파했고, 누구나 보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전파하였다. 한국에서는 이론적으로 누구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은 이미 오래 전에 자리잡았다. 이것은 유교 문화의 큰 축복이었다. 그러나, 이상이 항상 현실에 구현되는 것은 아니었다.

프랑스의 백과전서파가 편찬한 백과사전은 지식을 집약하고 지식인을 양성해내는 중요한 도구였다. 유럽에서 한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자가 백과사전에서 그 분야의 집필자가 되는 것이 당연하였다. 백과사전의 한 항목의 집필자라는 것은 그가 그 분야에서 다른 누구보다 더 통찰력 있는 지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하였다. 한국에서도 백과사전을 집필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으로 한 개인이 자신이 정리할 수 있는 모든 지식을 정리한 것이었지, 영어권과 같이 항목별로 집필자를 따로 두고 협업에 의하여 백과사전을 편찬한 것은 아니었다.

한국에서 위키백과가 부진한 것은 백과사전에 대한 문화, 즉 그 중요성과 신뢰성에 대한 인식이 서양에서의 그것과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의심을 해 본다. 서양인들은 기꺼히 백과사전의 한 항목을 생성하고 자신이 이 일에 자랑스러워하는데에 비하여 한국인들이 느끼는 감정은 서양사람보다 격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혹은 한국에서는 프랑스 혁명처럼 기존 권위에 전적인

반대를 이루어낸 문화혁명이 없었고, 그 과정에서 이성에 기반을 두고 권위에 대해 도전하도록 충동질하던 매체였던 백과사전에 대한 경험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

한국어 위키백과가 한국에서 이런 혁명을 이루어 내는 장이 될지 누가 아는가? 한국어 위키백과가 모든 권위를 이성 아래로 끌어내리는 문화적 혁명이 일어나게 하지는 않을까? 거꾸로 한국에서는 이성보다는 권위가, 자유보다는 집단이 더 우선 되고 있는 문화가 우세하기 때문에 위키백과가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훌륭한 위키백과 편집자는 지금도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 볼테르와 루소가 백과사전으로 바탕으로 이성에 시대정신의 뿌리를 내리는 문예혁명을 이루어 냈듯이 위키백과 편집자들은 중립적 관점과 참여로 자유문화혁명을 이루어 낼 것으로 믿는다.

한 위키백과 편집자의 미래 일기 (2008년 케골님의 수필, 픽션)

2015년 3월 27일

위키백과는 아직도 모하멧의 얼굴이 들어간 그림을 공용에서 빼달라고 요청하는 아랍권 편집자들의 조직적인 붓을 이용한 공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지난 달에 자연어 이해가 가능해서 그들의 접속 상황과 토론 페이지를 통해 공격 동향을 이해할 수 있는 지능형 안티반달 봇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작년처럼 맨하탄 문서가 3일 동안이나 영똥한 내용으로 채워지는 것과 같은 사고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오늘 [[위키백과:키르기즈]] 프로젝트의 리더인 봉곤님에게 이번 여름에 [[이식쿨 호]] 탐사 여행에 동행하겠노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키르기즈 프로젝트는 이제 만 2년을 맞았는데, 이식쿨 호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어서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이식쿨 호에 사는 어류와 조류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 내가 직접 가보자는 제안을 했었는데, 다방면에 열정적인 봉곤님이 탐사를 추진해왔다. 이번 탐사에는 중앙 아시아 고산 식생의 전문가이자

[[위키백과:위키프로젝트 생명체]]의 주요기여자인 일구삼님이 탐사 가이드로 동행하여 주시기로 했다. 비자와 비행기 예약 등의 일은 러스님이 해주시기로 했다.

8

내가 GPS 좌표와 촬영 방향이 기록되는 최신식 삼성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꼭 같이 가야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수락했다. 일정은 4 박 5 일인데 비행기를 타는 날과 키르키즈 [[비쉬켓 공항]]에서 이식쿨 호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이식쿨 호에서 보내는 시간은 이틀 정도가 될 것 같다.

탐사여행 동안 우리의 여정을 모두 동영상으로 담기로 했다. 이를 담아서 새로 분산 화일 시스템을 구축한 [[:wikitravel|위키여행]] 사이트에 공개하여 IPTV 로 시청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위키백과:이식쿨 호 포털]]은 작년에 수상한 [[위키백과:키르기즈 포털]]에 이어서 연말에 시상하는 슬로안 재단에서 수여하는 위키백과 최고의 포털 어워드를 탈 가능성이 높아진다.

나도 그렇고 다른 프로젝트 회원들도 무척 기대가 크다.

위키백과에 어서 오세요! ... Mineralsab

안녕하세요. 위키백과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직 한 번도 위키백과를 편집해 보신 적이 없다고요? 괜찮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위 9
키백과의 세계에 오신 것이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미 위키백과(위키피디아)가 온라인 백과사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위키백과는 누가 만드는 것일까요? 선택된 소수의 편집자가 백과사전을 만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위키백과는 누구나 만들 수 있으며 심지어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바로 위키백과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림_ 위키백과는 이런 곳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배포: 퍼블릭 도메인



물론 위키백과를 편집해 보신 분이라면 제 이야기나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지만 위키백과를 편집해 보시지 않으신 분이라면 제 이야기가 당황스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온라인 백과사전이 전문가도 아닌 일반인들이 만든 것이라고?’, ‘정말로 아무나 만들면 믿을 수 없지 않을까?’, ‘내가 과연 백과사전을 편집할 수 있을까?’, ‘사전을 편집하면 보수는 누가 주지?’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기존의 사전 편집 체계에 익숙한 아니 기존의 생산 체계에 익숙한 분들에게 위키백과에 대하여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조직 내에 들어가서 분업화된 어떤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돈으로 받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친근한 곳들 중에서 위키백과와 가장 비슷한 곳은 놀이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림_ 누구나 언제든지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점에서 놀이터와 위키백과는 비슷합니다.
 저작자: Peng, 배포: CC BY-SA 3.0 또는 GFDL



놀이터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원하는 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놀이터에는 누군가 이미 만들어 놓은 역할이 없습니다. 주워진 기구를 가지고 원하는 대로 놀 수 있습니다. 놀이터에는 순전히 자신의 재미를 위하여 놀러갑니다. 위키백과도 편집을 원할 때 편집할 수 있습니다. 위키백과 그 누구도 편집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내가 편집해야 할 분량은 없습니다. 위키백과에서 편집을 해도 돈이 보상으로 주워지지 않습니다. 사용자들은 위키백과를 오로지 자신의 보람, 취미, 이념 등을 위하여 편집합니다. 위키백과에서는 어떤 표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것을 만들 수 있고, 어떤 표제어 내용이 부족하면 그것을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마치 놀이터의 모래를 끌어 모아 마음대로 나만의 모래성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요.

다만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놀이터는 결코 나만의 공간이 아니라는 점이지요. 내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놀이터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가 나만의 모래성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만의 모래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위키백과도 마찬가지로 내가 문서를 원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도 문서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여러분이 자신만의 모래성을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이 이미 만들어 놓은 모래성을 파괴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미 존재했던 모래성을 파괴

한 것에 대하여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모래성을 이미 만들었던 사람이나 그 모래성이 존재하길 원했던 사람이 그것을 보고 여러분에게 달려와 모래성을 마음대로 파괴하느냐고 따질 수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분위기가 험악해질 수도 있겠지요.

위키백과에서도 충분히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위키백과에 들어와서 어떤 문서가 마음에 들지 않아 문서 내용을 지우거나 완전히 새로운 내용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용자가 장난을 멈추어 달라고 하거나 문서를 변경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편집을 예전의 내용을 돌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위키백과에서 이러한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현명한 사용자들이 이미 여러가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총의(總義)이며 이 총의에 의해 마련된 정책과 지침입니다. 총의는 위키백과의 의사 결정 방법으로 "모두가 머물러 있길 원하는 상태"이며 사용자들의 토론으로 형성됩니다. 또한 총의는 만장일치의 개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사용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그 상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면 총의가 형성되었다고 추정합니다. 민주주의의 의사 결정 방법인 다수결은 위키백과에서는 관리자 선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되지 않는 점도 유의해 주세요.

여러분이 새로 만든 표제어가 정책이나 지침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즉시 삭제될 수 있으며, 여러분이 바꾼 내용에 대하여 정책이나 지침에 따라 다른 사용자가 출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새로 만든 표제어에 대하여 토론이 시작될 수 있으며 삭제에 대한 총의를 모으는 절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림_ 위키백과 사용자들은 초보 사용자들에게는 친절하지만 인터넷 트롤에게는 관대하지 않습니다.
 저작자: SunnyChow, 배포: CC BY-SA 3.0 또는 GFDL, Kasuga의 원저작물에서 수정함.



여러분이 처음 위키백과에 들어와서 이러한 사용자들의 행동에 당황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심지어는 기존의 위키백과 사용자가 새로 편집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배타적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위키백과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위키백과는 소위 등급(등급 상승)이라고 불리는 검증 시스템이 없습니다. 관리자가 사용자를 일정 기간 동안 검증한 다음 편집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검증 절차 없이 누구에게나 편집 권한이 주워지기 때문에 기존의 사용자들은 처음 편집을 시작한 사용자가 선량하게 문서를 편집하는 사람인지 악의적으로 문서를 파괴하는 인터넷 트롤(Internet troll)인지 즉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림_ 위키백과에 중독되면 여러분도 이렇게 될지 모릅니다.

배포: 퍼블릭 도메인



따라서 처음 편집을 시작하는 사용자들은 기존 사용자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존 사용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새로운 문서를 생성하거나 기존의 문서 내용을 삭제하는 것보다는 오타를 수정하거나 분류를 다는 작업부터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문서를 파괴하는 인터넷 트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간단한 편집을 시작하면 더 많은 내용을 편집하기 위하여 더 많은 위키문법을 배우고 싶어질 것이며, 다른 사용자들과 토론하면서 위키백과의 정책과 지침, 나아가 문화에 익숙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편집 횟수가 많아질 수록 자신이 “주시”하는 문서가 문서가 생기고 위키백과에 지속적으로 접속하게 되겠지요. 또한 새로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총의 형성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위키백과는 사용자 모두의 것이며 사용자들이 만드는 곳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위키백과는 지식의 유토피아가 될 것인가?

... trainholic

13

지금까지 영어 위키백과는 전세계의 지식의 최종 보루이자 진정한 지식공유를 추구하는 사이트로 우뚝 섰다. 독일어 위키백과는 나름의 규율과 체계적인 지부 활동을 통해, 인물 문서에 뒤따르는 여러 법적 문제들에 슬기롭게 대처하며 입지를 굳혀왔다. 그렇다면 10주년을 맞이한 한국어 위키백과는 어떠한가?

한국어 위키백과의 첫 문서는 미국의 대통령 지미 카터이다. 이 문서만 보더라도 처음에는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짤막한 말만 적혀 있었으나, 지금은 매우 방대해져 집단지성의 가치를 느끼게 한다. 2003년 당시에는 문서가 약 100개뿐이었으나, 현재는 22만개에 달하는 문서를 보유하고 있다. 이토록 성장한 한국어 위키백과의 빛과 그림자를 조명해본다.

한국어 위키백과에는 여러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가장 신뢰할 수 있으며 업로드 속도 또한 매우 빠른 인터넷 시대에 적합한 매체이다.

둘째, 위키백과 문서 작성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미디어위키를 이용한다. 기존에 비해 프로그래밍 언어에 문외한인 사람도 쉽게 참여할 수 있다. 모두가 참가할 수 있는 백과사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셋째, 문서 반달 및 훼손에 대한 매우 빠른 대처가 가능하며, 관리자 30여명, 사무관, 그리고 여러 사용자들이 모인 이상적 커뮤니티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 밝은 빛만큼이나 위키백과의 그림자도 깊어 보인다.

첫째. 관리자, 주요 사용자 간의 친목과 배척 및 토론장에서의 과열화 현상. 지나친 친목이 공정한 판단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 토론상 발생한 과열은 서로

간의 연속된 충돌로 문서를 퇴화시키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이런 행위는 신규 사용자의 편집 의욕을 저하시킨다.

14

둘째. 허점이 많은 출처, 저작권, 문서 훼손 정책. 뻔한 내용, 또는 블로그 외에는 찾을 수 없는 내용의 출처 불인정 사례 등으로 인해 문서 질이 떨어지기도 한다. 지나친 저작권 정책과 안정적인 자유 저작물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며, 저작권에 옥죄어 문서 작성에도 애로사항이 있다. 또한 문서훼손은 즉각적 대처가 아닌 이상 어디선가 갑자기 나오거나 뉴스로 회자되기 때문에 위키백과의 안정에 악영향을 끼친다.

셋째. 대체제와 정치적 좌편향. 한국어 위키백과에는 영어판을 번역한 것도 많은데, 오역도 많기 때문에 한국어 위키백과 대신 영어, 일본어 위키백과를 대신 이용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또한 네이버 지식인, 두피디아 인터넷판, 엔하위키 등의 대체제로서 위키백과의 입지를 위협할지도 모른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 정치적으로 좌편향이라는 지적이 있는 등 중립성이 논란거리가 되기도 한다.

한국어 위키백과는 10여년간 꾸준히 달려오는 가운데 집단지성, 그리고 편집자들의 열정이 있었다. 그러나 위키백과는 아직 지식의 유토피아가 되지 못한다.

위키백과는 사용자,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관심으로 자라난다. 모두의 자유로운 지식. 이 한국어 위키백과가 10주년을 넘어서 20주년, 30주년, 나아가 브리태니커 이상의 지식의 보고가 되었으면 한다. 다음의 말로 마무리하고 싶다.

"위키백과는 아직 유토피아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유토피아로 나아가기 위한 열정은 사용자 한명 한명에게 있다."

※ 편집위원회에 의해 일부 다듬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자 Jjw 입니다. 한국어 위키백과는 10주년 기념 행사를 맞이하여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좋습니다. 한국어 위키백과는 이제 명실상부하게 온라인 백과사전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위키백과를 집단 지성, 또는 웹 2.0 등으로 표현하고는 합니다. 모두 평범한 다수의 사용자가 함께 참여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가리키는 설명일 것입니다. 저 역시 위키백과의 가장 큰 특징으로 사용자들이 참여를 꾀고 싶습니다. 일반 사용자들의 꾸준한 참여 없이는 위키백과의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없었고, 앞으로도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어 위키백과에 참여해 오면서 느꼈던 여러 즐거움과 앞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방향에 대해 제 생각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참여

제가 맨 처음 위키백과에 참여한 것은 2007년 3월 23일 입니다. 대략 5년이 조금 넘는 시간을 위키백과와 함께 보냈네요. 한국어 위키백과 10년 가운데 절반을 함께한 것은 저로서도 무척이나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토막글을 만들고, 이미 있는 문서들을 다듬고 보충하면서 보냈고, 시간이 얼마 지난 뒤에는 점차 크기가 큰 문서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 가운데에도 알찬 글이 된 문서들과 좋은 글이 된 문서들은 제 스스로가 대견스럽기도 하고, 보람찬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시간을 위키백과와 함께하면서 저는 여러 사람들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때로는 서로 다른 의견으로 토론을 벌이고, 때로는 서로 도와 문서를 살찌워 가면서 자연스럽게 위키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로 만난 분들 가운데는 제가 보아도 정말 열성적으로 문서를 만들고 다듬은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모든 열성적인 위키백과 사용자 여러분께 지금까지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아쉬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용자 모두가 느끼고 있다시피 최근 들어 새로운 활동적인 사용자의 참여 증가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참여한 사용자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사용자의 참여는 새로운 정보의 생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백과사전의 편집에는 여전히 문서의 적절한 분류, 미디어 자료의 발굴과 보충, 맞춤법 교정, 다른 언어판의 번역이나 한국어판 문서의 다른 언어판 전파, 넘겨주기의 생성과 관리, 없는 문서로 표시되어 있지만 다른 표제어로 이미 작성된 문서들을 확인하고 연결하는 작업 등등 하여야 할 수 많은 일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쌓여가다 보면 아무리 자신이 원해서 자발적으로 위키백과에 참여하고 있는 사용자라고 해도 지쳐가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하면 참여한 사용자 개개인의 작업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새롭게 건전한 호의를 갖고 참여하는 사용자들이 위키백과 활동을 즐겁게 계속할 수 있을 지 좀더 서로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저는 우선 좀더 위키백과의 활동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는 신규 사용자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단위에서 위키백과와 협력하여 함께 편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위키백과의 기존 사용자가 이들을 상대로 기본적인 사항들을 안내하여 기존 사용자와 어울려 협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키백과 내에서의 여러 프로젝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분야별 프로젝트의 개설과 개별적 참여, 들머리의 운영 방법을 점검하여 보다 해당 분야에 관심있는 사용자들이 자신의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협력하여 편집할 수 있는 온라인/오프라인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이야 큰 변화를 한꺼번에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우선은 활발하게 참여하는 사용자들 사이에서라도 하나의 주제를 선정하고 여러 사용자가 역할을 분담하여 문서를 만들고 보충해 나간다면 성과가 있지 않을까요?

이 모든 어려움이 쌓여 있더라도, 잃지 말아야 할 것은 위키백과의 사용자들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위키백과 공동체가 참여한 사용자들의 즐거움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지도 함께 생각하였으면 합니다.

공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위키백과의 문서들도 여러 사람들이 보다 쉽고 알차게 사용해야 그 값어치가 있을 것입니다. 근래에 들어 한국어 위키백과가 어느 정도 양적인 성장을 하면서, 여러 곳에서 위키백과의 문서를 검색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보람있는 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검색하여 정보를 찾는 것에서 더 발전하여 적극적으로 위키백과의 지식들이 여러 곳에서 공유될 수 있는 방법도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위키백과의 문서들을 편집하면서 느낀 점 가운데 하나는 문서 하나 하나는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해당 분야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지, 연관된 다른 지식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러한 위키백과의 낱말의 문서들이 모이면 어떤 종합적인 정보가 되는지에 대한 정보의 집합과 공유가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위키미디어 재단의 자매 프로젝트인 위키책이나 위키배움터 같은 프로젝트와의 연계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고, 들머리의 형태를 지금의 간략한 분야 소개와 개요에서 좀 더 발전시켜 해당 분야에 대한 매겨진 형태를 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문서만을 PDF로 생성하게 해 주는 지금의 출판 기능을 더 강화하여 사용자들이 위키백과의 문서들을 모아 개인 전자 출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위키백과와 함께하는 수학 공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위키백과와 함께하는 힙합 백배 즐기기》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런 방법들은 저 스스로도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지만, 위키백과에 쌓인 아까운 지식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여러 사용자들의 관심이 있었으면 합니다. 우선은 저 스스로가 먼저 어떤 방법이 좋을 지 시험적인 작업을 진행하여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즐거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는 것도, 그리고 다양한 참여의

방법과 모여진 지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도 우리 모두 각자가 즐거워야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위키백과가 점점 성장하면서 하나 하나 친절히 알려주고 일어나는 모든 토론에 사용자들이 모두 다 참여하는 일은 점점 불가능해져 가고 있고, 선의의 사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그저 장난을 하고 싶어 들어온 사용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는 참여한 사용자들이 더 이상 즐겁지 않다고 생각하는 순간 침체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서로 좀 더 즐거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한국어 위키백과 10주년 기념 행사는 서로에게 보다 즐거움을 주고 계속해서 함께 협업할 수 있는 큰 힘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여하는 분들, 그리고 여러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까지 다 함께 정말 신나고 즐거운 행사를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로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온라인/오프라인 행사들이 계속해서 기획되고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제 생각엔 적절한 시기를 정해서 정기적으로 "한국어 위키홀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준비를 잘 한다면 여러 가지 행사를 모인 사람들과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온라인 상에서도 그야말로 "재미"를 위해 서로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위키백과다운 공간이어야 하겠지요. 예를 들어 철도프로젝트에서는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여러 미디어 자료를 모아두는 "사진첩"같은 것을 마련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진첩에는 위키미디어 공용의 자료는 물론이고 저작권 때문에 직접 가져올 수 없는 자료들의 인터넷 주소를 외부링크로 연결하고, 위키백과의 문서가 아닌 사용자 모임으로서 백과사전의 취지와는 좀 다르더라도 재미를 위한 가벼운 농담도 허용하는 그런 페이지로서 운용되는 것도 허락된다면,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이 좀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모인 자료 가운데 백과사전에 어울리고 사용하기 편리한 것들은 문서 편집에 도움을 줄 수도 있겠고요.

이 밖에도 제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다양한 즐거움을 위한 방안들이 서로 논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위키백과야 말로 일생동안 즐기기 좋은 취미활동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여한 모든 사용자가 "위키백과를 하며 정말 오래 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랍니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며 하루 하루를 별 일 없이 잘 살던 제가 위키백과를 하면서 맛보았던 행복을 다른 여러분들도 느꼈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그러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마칩니다. 위키백과는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이니깐요.

후원

구글코리아, 아사달

도움주신 분들

윤종수, 이만재, 케골, Sotiale, Mineralsab, 리듬, 땅콩샌드, Ellif, ChongDae, Daffy123, Silver, caprisong, Leedors, trainholic, RedMosQ, 거북이, 분당선M, 다이나믹로동, 김성정, Park4223, shrhd25, KSH1015, 자연머리, jjw, 아사달

행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평소 위키백과를 편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편집위원

김정정민

주관: 위키미디어 대한민국 (준)

웹사이트

www.wikimedia.kr